



FAIRTRADE  
INTERNATIONAL

# The Future is Fair

ANNUAL REPORT 2020-2021

국제공정무역기구 연례보고서 2021

# 목차

인사말 .....	2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 2020 .....	3
공정무역 연대체의 코로나 19 대응 .....	4
글로벌 전략: 2021년, 그리고 그 후 .....	6
2020년의 성과: 도전과 희망의 해 .....	7
생산자와 노동자 - 약자에서 강자로 .....	7
생계소득 .....	9
생계임금 및 노동자의 권리 .....	11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기회 .....	13
기후 회복력 .....	15
성과와 혁신 .....	17
생산자의 판매 및 시장 현황 .....	17
수요 증가 .....	19
맞춤형 해결책 .....	20
인권 및 환경 의무 감사 .....	21
옹호활동 및 시민참여 .....	22
더욱 공정한 공급망을 위한 디지털화 .....	24
미래를 향한 발판 .....	25
국제공정무역기구 자본 및 이사회 .....	26

## 표지 사진: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시리즈  
케냐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Caroline Jepkogei Rono (5페이지 참조)

# 인사말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지난 30년간 모든 생산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하고, 개인의 잠재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전 세계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회복 기금은 60여개 국, 약 50만 명의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사용됐습니다. 특히, 생산자들의 생산성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개선 및 기술 발전 분야에 사용됐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코로나19의 장벽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조직 전체를 리브랜딩하여 상호연결과 공정무역에 대한 조직의 비전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전 CEO Dario Soto Abril에게 큰 박수와 감사를 돌리며,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체계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공정무역 시스템 내의 약 30개의 조직 및 기관을 이끌며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Nyagoy Nyong'o 대표이사가 임명됐으며, 독일의 본(Bonn)에 있는 국제공정무역기구를 경영할 새로운 전임 이사 Melissa Duncan 역시 새로 선출됐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업이 사회의 모델이자 기준이 되게 할 야심 찬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의 기관으로의 본 기구의 비전과 방향을 새로이 수립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본 기구는 생산자, 수출입업자, 브랜드 오너, NGO, 관련 정부 기관 등을 포함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약 650개 이상의 주제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공정무역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으며,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인류 모두의 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잡은 인간성과 신념을 담은 글로벌 전략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양질의 생계는 인권입니다. 생산자들이 노력하여 최저소득 수준 이상의 생계소득을 달성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며, 추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토대입니다.

하나, 사회 정의는 지속가능성을 촉진합니다.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혁신적인 협업은 더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전 세계의 공정무역 생산자 및 노동자들과 함께 더욱 공정한 미래를 기대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비즈니스 방식을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을 보장하는 세계 무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공정한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Nyagoy Nyong'o**  
국제공정무역기구 글로벌 CEO



**Melissa Duncan**  
국제공정무역기구 전무 이사

#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 2020

**190만명**의  
생산자와 노동자  
71개국  
1,880개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



**78%**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 협동조합이  
**생산량 50% 이상**  
을 공정무역  
기준으로  
판매



**2,409억 원**  
7개의 주요  
공정무역  
인증 원료  
생산자들이 받은  
**공정무역 장려금**  
(2020년)



공정무역 협동조합 내  
여성 생산자 비율  
**17%**  
**41%**  
공정무역  
협동조합 내  
여성 노동자 비율  
(2020년)



공정무역  
인증 제품  
제조기업 수  
**2,552개**  
공정무역 인증 제품 수  
**3,700개 이상**



공정무역 인증 제품이  
판매된 나라  
**전 세계**  
**131개국**  
(2020년)



**2백 2억 원**  
모금된 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회복  
**지원 기금**  
(2020년)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윤리 라벨로 선정

**67%**  
소비자가  
공정무역 마크를 인식  
그 중 **87%**  
소비자가  
공정무역 마크를 신뢰



**10명 중 7명**  
**공정무역 제품**  
을 구매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낌

**i**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생산자, 협동자  
조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fairtrade.net/impact](http://www.fairtrade.net/impact)

# 공정무역 연대체의 코로나 19 대응

생산자 협동조합과 생산자 조직은 농촌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다.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공정무역 장려금을 포함한 조합의 자체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대응에 함께 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공정무역 인증 차(Tea) 생산자 협동조합 Chamong Tee Exports Pvt. Ltd.는 4개의 차 농장에서 예방 접종 캠페인을 조직하여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독일의 바이어들 중 한 곳과 협력하여 일부 의료 약국에 코로나19 격리 병동을 추가했다.

## 공정무역 시스템 및 파트너들의 즉각적인 구호 활동

약 60개국에 있는 50만명 이상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지원하는 202억원 상당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회복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본부와 국가 사무소들, 그리고 정부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함께 노력하여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규모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식자재 제공, 그리고 봉쇄 기간 동안의 저장 창고 및 운송 비용과 같은 다양한 즉각적인 구호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들은 팬데믹의 장기적 여파를 고려하여 생산 작물을 다양화하거나 새로운 농업 관습을 적용하고 도입하는 데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온라인 커머스 활동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 [생산자 이야기 듣기](#)



공정무역 장려금과 지역 보건소의 도움으로 인도의 공정무역 인증 차(Tea) 생산자 협동조합 Chamong Tee Exports Pvt. Ltd.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900개**의  
생산자 단체  
참여

**57개국**  
현재까지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

**54만명**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이 기금을 통해 생산자들은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자 및 기타 농업 비품 구매, 지역 식량안보 프로젝트 수립, 채소밭 및 농기구 지원을 통해 생산자들의 자체 생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 NAPP의 최고운영책임자(COO)  
Sanjeet Khurana

“ 기아, 빈곤,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금에 약 10억원을 지원하여 소작농과 협동조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Gerd Müller 박사



Caroline은 공정무역 생산자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케냐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이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Nahashon은 케냐 서부 지역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인 Kapkiyai의 조합원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의 생계는 이 코코넛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 인도네시아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넛 설탕 생산자 협동조합의 조합원, Ponisih

###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생산자의 이야기를 전하다.

2021년에 촬영된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대륙별 세 명의 생산자들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삶을 자세히 조명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 <Farmers: 생산자들, 글로벌 위기에 대항하다>는 페루, 인도네시아, 케냐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촬영됐으며, 공정무역 인증 원료 생산자인 Roberto, Ponisih 그리고 Caroline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의 사회 운동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현지 촬영 팀이 합류하여, 팬데믹 이후 생산자들의 삶을 감동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기후변화, 생계임금 및 미래 세대 농업의 현실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 다큐멘터리 바로 보기](#)

# 글로벌 전략: 2021년, 그리고 그 후



페루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협동조합ACOPAGRO의 식물 모듬장 관리자, Carmen Boniella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노동자는 본 기구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와 지구의 가장 시급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혁신해 나갈 것이다.

##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핵심 글로벌 전략

1. 생산자 및 노동자 역량 강화
2. 성장과 혁신
3. 옹호활동 및 시민참여
4. 더욱 공정한 공급망을 위한 디지털화
5. 미래를 향한 발판

##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가?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이 글로벌 무역구조,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산자와 노동자의 생계에 공정무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측정 대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구의 \*변화 이론을 조정했다.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 사회 정의의 구축을 위한 공정무역 운동 계획 참여, 적응 관리 및 목표 달성 방안을 모두 포함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평가 방법론.

지난 5년 동안 이행된 150개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운동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명확한 효과를 거두었다.

- 생산자 및 노동자 가정의 소득과 복지 수준 증진 및 회복력 향상
- 소규모 생산자 협동조합들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민주주의 기관 구축
- 근무 조건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노동 환경 개선
- 환경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회복력 향상

##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노하우가 전략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생산자와 노동자가 미래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Empowerment)은 곧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이 지속가능성은 양질의 생계 유지, 기후 회복력, 성평등, 청년들을 위한 미래 기회, 인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이슈들이 전 세계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기에, 생산자 역량 강화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분명하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기존 시장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시장으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마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노동자가 더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2020년의 성과: 도전과 희망의 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아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비상 사태와 같은 급격한 속도의 세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을 통해 그 회복력을 강화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더 공정한 비즈니스 체제로의 변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체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국제공정무역기구가 만들어온 성과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담고 있다.

## 1. 생산자 및 노동자 역량 강화 - 약자에서 강자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사회, 경제, 환경 기준은 생산자와 노동자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공정무역 최저금액(Fairtrade Minimum Price) 및 공정무역 장려금(Fairtrade Premium), 안정적인 지배구조, 생물 다양성 보호, 성평등, 그리고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필수 이행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래자(수출입업자 및 제조자)가 공급망 전체에서 공정무역 기준과 원칙을 따르도록 감사하는 절차가 수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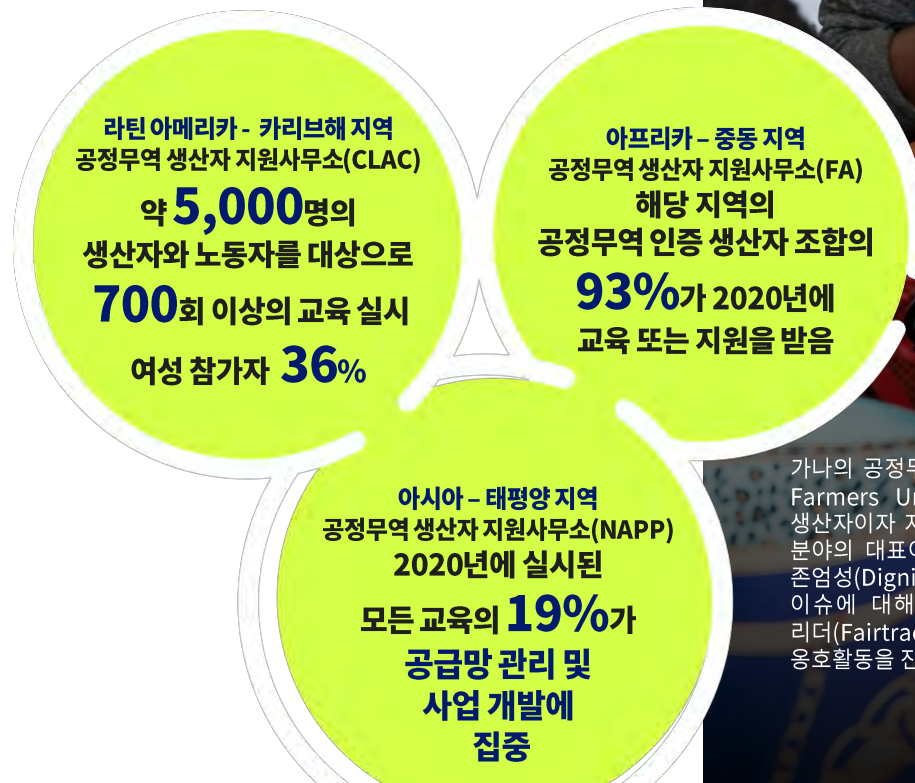
공정무역을 이행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은 물론, 공급망 내 파트너들 역시 지속가능성 달성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3개의 대륙별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에서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더욱 내실 있게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생계와 권리,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훈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지속가능성의 핵심, 안정적인 생산자 협동조합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생산자 협동조합은 그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시장을 확장하며, 조합원 및 거래 파트너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자 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 커피 로스팅과 같이 원료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공정무역 장려금의 전략적인 투자, 혹은 상품화된 완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신용 대출 기회 제공
- 생산자 조합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재무 관리 및 미래 전략 제공
-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한 교육 또는 가뭄 저항성 작물에 대한 투자와 같이 생산자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젝트>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180여개의 코코아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의 80% 이상이 생산되는 곳이며, 또한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2016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조합 중 90여개의 협동조합이 재정 관리, 아동노동 식별 및 개선 시스템, 그리고 소득원 다각화를 포함한 보다 더욱 집중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다.



가나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 Asunafu North Farmers Union의 Deborah Osei-Mensah는 코코아 생산자이자 지역 개발 책임자이다. 그녀는 조합 내 공정무역 분야의 대표이며, 동료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존엄성(Dignity for All)>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노동과 같은 이슈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청년 리더(Fairtrade Youth Ambassador)로서 기후 행동에 대한 옹호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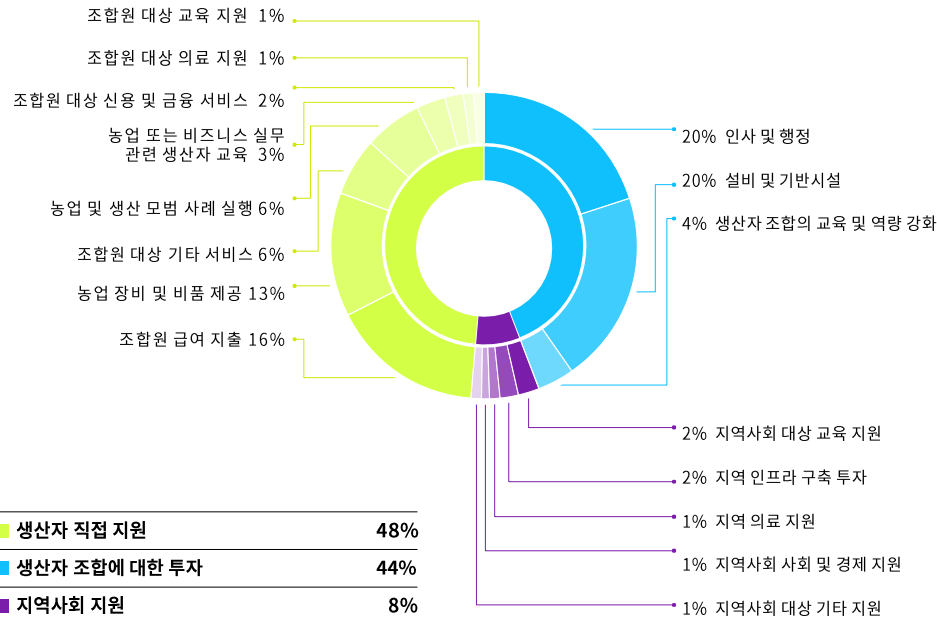
## 공정무역 장려금: 생산자 및 노동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정무역 장려금은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에 참가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중 하나이다. 이는 생산자 조합이 공정무역 원료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과 더불어 추가로 지불 받는 고정된 금액을 말하며, 생산자와 노동자는 이 장려금을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직접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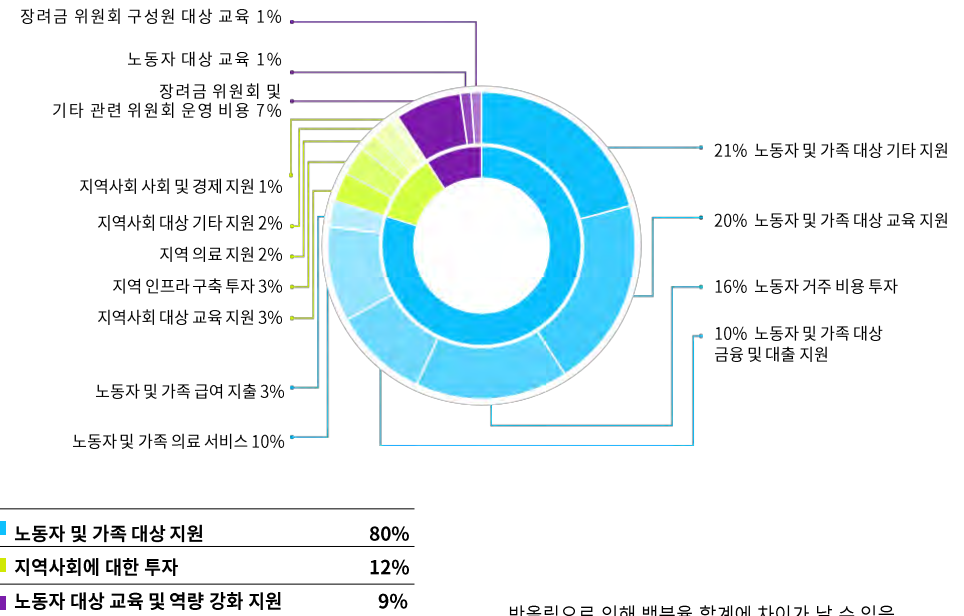


“우리의 바람은 커피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공정무역 덕분에 창고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 COOCAMINAS의 대표, Juares Carlos Pereira

### 공정무역 소규모 생산자 협동조합의 공정무역 장려금 사용 현황(2020)



### 공정무역 인증 노동자 고용 단체의 공정무역 장려금 사용 현황 (2020)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을 합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글로벌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현재 자사 초콜릿 제품인 <Bite to Fight>를 제조하는 데에 있어, 코트디부아르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협동조합 CANAAN에 자발적으로 공정무역 생계소득 반영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8개의 회사 중 하나이다.

## 생계소득

생산자들이 양질의 주거 환경, 음식, 의복, 교육, 의료 및 필수적인 기타 가계 지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생계소득을 달성했다고 표현한다. 이들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원료 생산 활동뿐 아니라 생산 외적인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생산비용과 양질의 생계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종합적인 생계소득 모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량, 적절한 농장 규모, 노동자들의 임금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비용을 고려한 원료 가격**

또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의 현재 소득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커피와 코코아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문맹률이 낮은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생산 기록 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다. 2020년에는 3개 대륙, 7개국의 2,000여명 이상의 커피 생산자에게 생산기록부와 시스템이 전달됐다. 올해도 온두라스, 페루,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커피에 대한 생계소득 기준선을 설정하고 생계소득 반영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될 예정이다.

1년간의 기록을 통해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수입과 지출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개발 중에 있다.

일부 생산자 조합은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 계약 과정에서 더 높은 원료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현재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득 격차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과에 따라 생산자의 소득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 영상 확인하기](#)

국제공정무역기구는 2018년부터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를, 2019년부터는 마다가스카르와 우간다의 바닐라를,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콜롬비아의 커피** 생산에 대해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생계소득 기준선>을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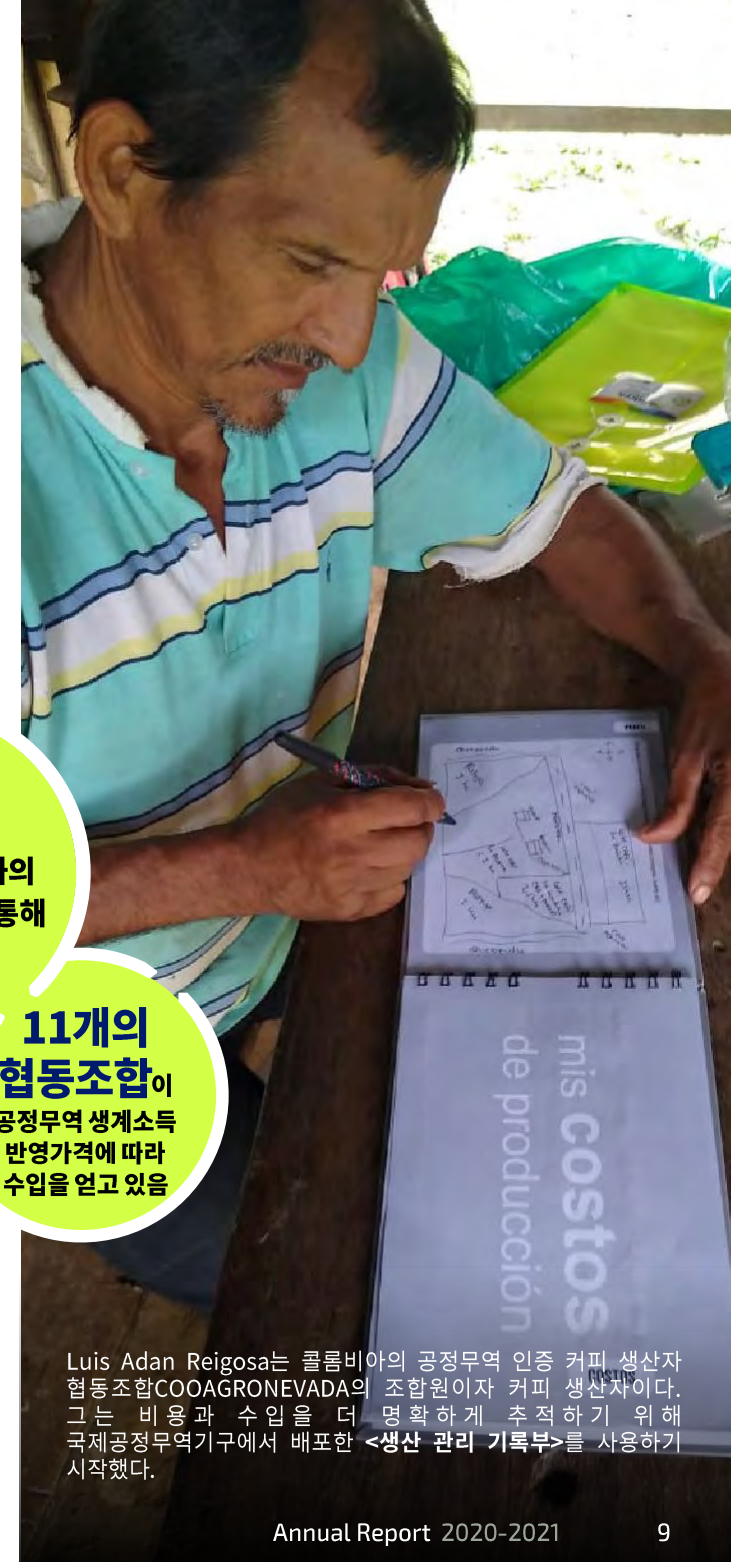
이는 기업이 공급망 내의 생계소득을 보장하기를 원할 경우 생산자 조합에 자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또한, 우간다,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페루,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커피에 대한 생계소득 반영가격 역시 논의 중에 있다. 현재 8개의 기업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 있는 11개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협동조합에 생계소득 반영가격을 준수한 코코아 값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기업은 생계소득 반영가격 준수 외에도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 품질 개선, 소득 다양화 및 생계 소득 달성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공급망 파트너와 국제공정무역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 및 이행된다.

**8개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커피 생산자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자신이 생산하는 커피 타입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이 자신이 재배한 커피의 가치를 모른다면 제안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그들의 커피 품질과 생산 비용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 톨리마(Tolima)에 위치한 커피 생산자 협회 ASOPEP의 생산자 판매 관리자, Camilo Enciso



**11개의  
협동조합**이  
공정무역 생계소득  
반영가격에 따라  
수입을 얻고 있음

Luis Adan Reigosa는 콜롬비아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COOAGRONEVADA의 조합원이자 커피 생산자이다. 그는 비용과 수입을 더 명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배포한 <생산 관리 기록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가나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을 대상으로 한 생계소득 향상

가나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협동조합 Fanteakwa는 독일 리테일 기업 《REWE Group》의 초콜릿 브랜드인 <Very Fair>에서 사용하는 공정무역 코코아를 공급한다. 이 기업은 공급망 내 생산자들에게 공정무역 생계소득 반영가격을 지불한다.

또한 Fanteakwa의 조합원들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 관리 기록부>와 같이 지속가능한 수확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국제공정무역기구 독일사무소는 Fanteakwa의 조합 사례를 기록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 Fanteakwa조합 영상 미리 시청하기](#)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지속가능한 코코아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저희의 기술력을 높여 줬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저희 조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공정무역을 통해 코코아가 판매되고, 생산자들이 양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 Fanteakwa의 대표이자 코코아 생산자인 Kwasi Kublenu가 생산자들에게 생계소득 지급금을 분배하기에 앞서 행사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2021년 4월)

Mina Antwiwaa는 가나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 Fanteakwa의 조합원이며, 지난 해 4월에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설정한 공정무역 코코아 생계소득 반영가격을 지급받았다.



**코트디부아르**  
**공정무역 코코아 인증 생산자,**  
**4년 동안 가계 소득 85% 증가**

경제 영향력을 평가하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혁신기업 **《Impact Institute》**는 4년 전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들의 가계 소득을 평가했다. 다음의 연구 결과는 2017년 이후의 성과를 보여주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 생산자들의 평균 가계 소득은 미화 \$2,670에서 \$4,937로 약 85% 증가했다.
- 과거에 비해 43%까지 오른 높은 작물 수확량과 소득의 다양화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두 분야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아프리카 사무소(Fairtrade Africa)에서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분야이기도 하다.
- 생산자 가정의 약 15%가 생계소득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연구 결과 대비 7% 상승한 수치이다.
- 모든 생산자가 각자의 목표 수확량을 충족시키고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생계소득 반영가격에 따라 원료 값을 지불받게 된다면, 생산자의 90% 이상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3분의 1은 최소한 지역사회 내 일반 생계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더 높은 원료 가격은 생산자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코코아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원료의 양을 늘리고, 더 많은 파트너가 국제공정무역기구가 권고하는 공정무역 반영가격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세히 보기](#)

“ **공정무역 기본급은 생산자가 건강, 교육, 자기 계발, 행복 등을 추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끈기, 근면 그리고 이 생계소득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를 수 있습니다.** ”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이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공정무역 노동자 네트워크의 리더, Maria Jorge

**생계소득 및 노동자의 권리**

국제공정무역기구는 1년간의 노력과 공식적인 협의 끝에 드디어 지난 2021년 초,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조합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기본급(Fairtrade Base Wage)>**을 도입했다. 공정무역 기본급은 전 세계 30여 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본급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Global Living Wage Coalition》**이 정한 생계소득의 최소 70%를 실제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화훼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선 과일 분야에 대해서 기본급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이는 바나나 생산자들의 생계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서아프리카, 멕시코 등 현재 공정무역 기본소득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지역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바나나 노동자가 최대 15%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조직에 대한 공정무역 신선과일 기준(Fairtrade Fresh Fruit Standard for Hired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이제 바나나 생산자 조합은 국제공정무역기구에 임금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임금과 생계임금 간의 격차, 임금의 성별 격차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기업이 생계임금 시스템에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할 때,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발적 생계임금 차등제>**를 소개했다. 본 기구가 각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조합(농장)에 대한 생계임금의 차등 정도를 계산하고, 기업은 공정무역 가치에 공감하는 만큼 차등적으로 생계임금을 지급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이와 관련된 거래 계약 체결을 돕고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임금과 투명성 외에도 노동자가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단체 교섭과 옹호활동을 지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자 권익 단체와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이나 고용 보장과 같은 양질의 근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노동조합, 바나나 생산자, 그리고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이주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고안하기도 했다. [자세히 보기.](#)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 조합 내 노동자를 위한 생계임금 전략 [자세히 보기.](#)



Victor Manuel Pimentel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조합인 Kellia II S.R. L에서 바나나 포장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공정무역 덕분에 오토바이를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도의 타밀 나두(Tamil Nadu) 지역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자 조합 United Nilgiri Tea Estates에서 한 생산자가 차잎을 재배하고 있다.



Anny Cabreja는 도미니카 공화국 몬테크리스티(Montecristi)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협동조합 ASOBACAS의 조합원이자 생산자이다. 그녀는 공정무역을 통해 농장에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식당은 생산자들이 비로소 인간답게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또한 공정무역을 통해 공인 회계사로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 생계임금 보장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계임금 연구

전문기관 《Anker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생계임금에 대한 보다 새롭고 신속한 평가 방법론>을 선구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방법론은 최근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창립 멤버로 가입했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무역기업인 IDH가 회원으로 있는 《글로벌 생계임금 연합(Global Living Wage Coalition)》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이제 노동자와 생산자들이 생계임금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비용이 필요한지를 더욱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측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생계임금 측정 방법론의 참고 값은 글로벌 생계임금 측정법으로 잘 알려진 <Anker 방법론>과 같다. [자세히 보기](#)

국제공정무역기구는 또한 생계임금 측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그 측정 토대가 되는 <Anker 방법론>을 보완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측정하는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 노동조합 및 기타 공정무역 주체자가 성별 간의 임금 격차를 이해하고, 여성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자 조합 내 노동자의 권리 신장 연대



인도와 스리랑카의 차(Tea) 생산 노동자들은 전력 부족과 여성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공정무역 차 기준(Fairtrade Standard for Tea)을 업데이트했다.

-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자 조합은 **젠더 정책 및 강제노동과 젠더 기반 폭력 금지 정책**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 **미성년자 합법 고용**을 위한 명확한 업무 형태와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 생산자들의 **주거환경 기준, 위생 및 세탁 시설**과 관련한 엄격한 조항들이 추가됐으며, 주거 환경과 근로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 인증 과정 및 경영진과의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합 내에 **공정무역 준수 위원회(Fairtrade 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해야 한다.
- 여러 지역과 더불어 특히 Assam 지역에서 차잎을 수확하는 노동자의 생계임금 격차를 좁히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여성 생산자들이 2020년 코트디부아르의 여성 리더십 학교 2기 졸업생이 되었다.

“우리는 한 동네에서 온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작은 조합입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낙농 제품 가공에 관한 소규모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 공정무역 젠더 리더십 학교 졸업생 Dilbar Sydykova의 이야기 [자세히 보기](#)

###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기회 증대

여성이 지도자와 생산자로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때,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생계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미래 농업의 방향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다음 세대의 생산자와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글로벌 전략이 성평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청년들을 포용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또한, 아동 노동 및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 여성 지도자

2021년 1월, 코트디부아르에 거주하는 여성 코코아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여성 리더십 스쿨이 144명의 훌륭한 3기 입학생들을 맞이했다. 현재까지 졸업생에 의해 진행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약 3,800명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Fairtrade Africa)는 이 리더십 스쿨을 가나까지 확장 시킬 계획이다.

[여성 리더십 스쿨 2020년도 졸업생 만나보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NAPP)는 7개국을 대상으로 젠더 리더십 스쿨을 개설했다.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의 90여 명의 졸업생이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는 여성들의 리더십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지난 1년 동안 45개 생산자 조합의 28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2014년에 시작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및 페루 출신의 교육생들을 배출했다.

[▶ 참가자 사례 보기](#)

### 공정무역을 통한 협동조합 내 여성 생산자 참여도 증가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의 연구원들은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케냐에 있는 6개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을 점검하고, 그들이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젠더 전략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 **접근성 및 포용성:** 이 연구에 참여한 6개 협동조합 내 여성 조합원의 비율이 12~40%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합에서 여성 생산자들이 조합의 거버넌스와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고 있다.
- **역량 강화 및 형평성:** 리더십 역량 강화는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 확대와 함께 이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여성이 생산자 조합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에 젠더 정책을 제안하고, 여성 리더십 스쿨과 같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공정무역 장려금이 여성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사용되기를 장려한다.

[자세히 보기](#)



볼리비아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 ANTOFAGASTA의 조합원인 Yola Condori는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주최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 내 청년 주도형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층 생산자의 발전을 돕고 기후 회복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청년 생산자를 위한 지원

생산자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미래는 없다. 만약 청년들이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양질의 삶을 누리며 현대화된 농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족의 농장을 이어받는 것이 꿈인 청년들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청년에게 성장과 비즈니스의 기회 뿐만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안정적인고 혁신적인 고용 환경은 사회의 식량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모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가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농업, 기후 적응, 리더십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1년 말, 온라인으로 개최된 청년 포럼을 통해 미래를 이끌 공정무역 청년 생산자들이 다른 생산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생산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Fairtrade Africa)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투자한 공정무역 장려금 지원을 통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모아 공정무역 동문회를 조직했다. 청년들은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담을 공유할 수 있었다.

공정무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산자 지원사무소(NAPP)는 작년 12월 태국에서 청년 캠프 시리즈를 시작했다. 커피, 리치, 허브, 향신료와 같은 공정무역 인증 원료를 생산하는 조합원 가정에서 약 40명 이상의 10대 ~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또한, NAPP는 필리핀의 공정무역 인증 사탕수수 생산자 조합의 Diana Faith Diamante와 같은 주목받는 청년 리더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Diana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iana의 이야기 듣기.](#)

### 아동 및 성인취약층의 권리 보호

양질의 생계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 그리고 현대판 노예제와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 보호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핵심 가치이다. 또한, 본 기구는 계속되고 있는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위험 상황, 그리고 일터 내에서의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혹은 그 어떤 형태로의 폭력 사례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기준에 엄격한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아동과 인권에 대한 생산자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수립하여 아동노동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는 생산자들의 작업 현장에서 아동 노동착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즉각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 최저금액을 통해 생산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고 공정무역 장려금을 통해 교육 및 보육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노동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실례로, 온두라스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 3곳과 바이어들이 함께한 협력 프로젝트는 커피 생산자들의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 및 여성 인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협동조합에는 아동보호위원회가 구성됐고, 청년 세대와 더 넓은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과 혁신적인 캠페인을 수립하고 있다.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는 약 **30**개의 아동노동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공정무역 장려금으로 지역사회에 물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매우 기쁩니다. 덕분에 깨끗한 천연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었고, 현재를 넘어 미래 지역의 필요까지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자원 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진 천연자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정무역 인증 사탕수수 생산자 조합DFWARA의 Diana Faith Diamante.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는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그 대응 방안을 알리기 위해 5부작 라디오 시리즈를 제작했다. "향후 몇 년 동안의 강수량과 기온을 예측할 수 있었고, 양봉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놓음으로써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공정무역 인증 꿀(Honey) 생산자 조합COPIASURO의 조합원, Dalila Tema Gomez

[▶ CLAC의 양봉 프로젝트 더 알아보기](#)



<국제공정무역기구 기후 아카데미>에서는 케냐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 방법을 비롯한 농작물의 다양화 및 대체 에너지원 장치 설치 매뉴얼을 제공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본 기구는 다른 나라의 생산자들에게도 위의 정보가 담겨있는 지침서를 발행하여 무료로 제공했다. [자세히 보기](#)

## 기후 회복력

생산자들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 변화에 적응하거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자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향후 10년간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의 개선을 위해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마쳤다.

- 친환경 농업 방식 확대
- 기후변화 대응행동: 기후행동 현황 평가 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적용 및 이행
- 공정무역 탄소 배출권 옵션을 통한 탄소 배출 상쇄 효과 홍보
- 모든 수준에서의 기후행동을 위한 연대 촉진

교육은 기후변화 대응의 첫 단계이다.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적응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 6개국에서 시행된 <국제공정무역기구 기후 아카데미>는 그늘나무 활용, 수입원 다양화, 그리고 날씨 패턴 추적을 위한 기술 사용법 등 보다 심층적인 기후행동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2020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는 지역 교환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온라인 청년 기후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앞장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그리고 니카라과 등 남미 전역에서 시행되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와 지역 내 옹호를 확산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약 112명 청년 생산자가 교육받았다. [자세히 보기](#)

지난해 초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사무소(Fairtrade Africa)에서 <기후변화 아카데미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 지침서에는 수자원 관리, 에너지 사용 및 농업업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책과 교육용 비디오가 수록됐다. [자세히 보기](#)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이행된 약 130개의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한 올해 초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커피 분야에 새롭게 도입한 공정 무역 기준(Fairtrade Standard)은 협동조합원들이 기후변화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는 지난 2020년 허리케인 Iota와 Eta로 인해 황폐해진 중앙아메리카 지역 상황과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재해 및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시작 전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후원을 받았으며, 기후재해 복구뿐 아니라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자세히 보기](#)

파트너십은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그 규모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이 환경 발자국을 줄이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연대체인 <Cool Farm Alliance>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양 기관은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자 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앞장서고자 교육을 받았고, 이 이슈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으며, 이제 생산자 조합 내 청년으로서 새롭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볼리비아의 공정무역 인증 퀴노아 생산자 협동조합 ANAPQUI의 조합원이자 청년 대표, Irene Huarachi Arcayne



Elqui Alfredo Sepulveda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인 ASOBRIS의 조합원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5년 동안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다. Elqui는 공정무역 장려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다른 생산자들은 유기농 커피 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비료 제조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ASOBRIS 농부들은 커피 원두를 씻을 때 발생하는 생태계에 해로운 부산물(honey water)을 처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그늘을 조성하여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나무(Shade Tree)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콜롬비아 커피에 대해 도입하는 새로운 <공정무역 생계소득 반영가격 (Living Income Reference Prices)>은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이기도 하다.

### 공정무역 생산자와 기후변화: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우선 대응행동 식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바나나, 커피, 코코아, 면화, 사탕수수, 차 등 총 6개 원료에 대하여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과 생산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 온난화 지속 기간 증가, 강수량 증가 및 기타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지역마다 또는 재배작물마다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지역 및 작물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과 현지 생산자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생산자들을 도울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입안자에게 기후변화에 대항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이며,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2. 성장과 혁신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영향력 증가는 세계 무역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더욱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더 나은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임을 잘 보여준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핵심적인 전략은 생산자의 판매 이익을 안정화 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야심 찬 도전에 부합하는 공정무역 공급망과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 생산자의 판매 및 시장 현황

코로나19는 2020년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7개의 공정무역 인증 원료의 시장 구도에 변동을 가져왔다. 일부 생산자는 국내 유통 및 수출과 관련하여 물류와 운송 문제에 부딪혔다. 공정무역 인증 제품 중, 슈퍼마켓 등을 통한 가정 소비와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그 외의 상업 소비와 판매량은 감소했다. 생산자의 원료 판매 상황부터 최종 제조 제품이 소비자 시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역동적인 제품 생산 라인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 바나나

2019년의 높은 판매 기록 이후, 일반 공정무역 바나나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 유기농 공정무역 바나나의 판매량은 증가하여, 전체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판매량은 총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시장에서의 과열된 가격 경쟁은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과 유통 및 소비의 혼란은 판매량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이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는 전체 공정무역 바나나의 약 90% 정도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된다는 점과 지난 2020년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생산량 감소가 있던 것을 고려하여, 생산자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공정무역 바나나의 수요량이 가장 많았던 시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였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웨비나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공정무역 바나나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히 보기](#)

### 코코아

역설적이게도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는 소비자 시장에서 인기있는 제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생산자들의 판매량은 30%까지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공정무역 코코아 원료에 대한 수요는 높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량 감소와 새로 적용된 공정무역 최저금액 상승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 일부 거래처들은 공정무역 인증 원료 구매를 중단했고, 또 일부는 거래량을 줄였다. 그러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의 전체적인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에는 2020년 초콜릿과 같은 코코아 완제품의 판매율이 26%에서 37%까지 증가했다.

### 커피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정무역 생산자들의 커피 판매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생산 지역 내의 통행 제한과 선적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운송이 제한됐다. 2020년 2분기에는 주요 커피 소비국에서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하는 제조커피 판매량이 90%가량 감소하였으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총 커피수요 감소량을 다소 상쇄했다.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대한 수요량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골든컵(Golden Cup)과 같은 대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골든컵 대회는 14개국에서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열리며, 공정무역 커피의 높은 수준을 알린다. 2020년 공정무역 인증 커피의 판매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였다.

“ **식품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

2021년 6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 지원사무소(Fairtrade Africa)의 프로그램 담당자Chris Oluoch의 아프리카 공정무역 컨벤션 연설 중



**78%**  
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이  
전체 커피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공정무역  
기준으로 거래함

인도네시아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Koptan Gayo Megah Berseri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정무역 장려금을 커피나무 재생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 협동조합의 커피 관리 프로그램은 공정무역 커피 개발 계획에 따라 국제공정무역기구 스위스 사무소(Max Havelaar Switzerland)에 의해 지원받은 프로그램으로, Raihan과 같은 청년들을 고용하고 교육한다.

## 면화

패션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2020년 공정무역 면 생산자의 매출은 약 11%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패션과 섬유업계에서 지속가능성은 중요 키워드가 됐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패션 브랜드의 더욱 적극적인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전체 공정무역 면화의 4분의 3은 인도에서 제조됐다. 한편 공정무역 면화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였다. 또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공정무역 면화 시장의 성장을 통해 공정무역 면화에 관한 관심 증가를 엿볼 수 있다.

## 화훼

꽃, 식물과 같은 공정무역 인증 화훼 제품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빠른 수출 및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2020년 공정무역 인증 꽃과 식물의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이슈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단 2%의 판매량 감소만을 나타냈다. 수출이 중단된 2020년 봄,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들은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2020년 공정무역 화훼 소비량 상위 국가는 독일, 영국,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였으며,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다.

## 설탕

2020년 생산자 측 설탕 판매량 기록에 따르면 공정무역 인증 설탕 판매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설탕 공급망의 복잡성과 판매량 결산 시기와는 다소 다른 수확 시기,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일부 수치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심각한 전염병 관련 이슈들과 기후 변화 문제는 중앙아메리카의 설탕 생산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피지(Fiji)는 2020년 12월 열대성 사이클론 Yasa에 의해 섬의 상당 부분이 황폐해졌다. 그런데도 2020년 공정무역 인증 설탕은 소매업 부문에서 성장을 이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봉쇄된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사람들의 설탕 소비가 증가한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 시장에서의 설탕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Eswatini와 같은 생산자들에게 공정무역 설탕이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 차

공정무역 인증 차(Tea) 생산자들의 판매량은 2020년 약 3%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공정무역 인증 차의 소비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생산 지역에서의 외출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와 노동자의 보건 및 근무 환경 이행 요소들이 수확 시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모든 시장이 2020년에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공정무역 차의 판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였다.



인도의 공정무역 인증 면화 생산자 조합 Chetna Organic Agriculture Producer Company에서 한 생산자가 씨앗과 입자를 제거하는 과정인 조면 과정을 위해 면화를 옮기고 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생산자들의 주요 7개 공정무역 원료 판매량 추정치(2020년)

원료	양	단위 <sup>1</sup>	일반 공정무역	유기농 공정무역	공정무역 장려금수입 현황
바나나	738,874	톤	37%	63%	€35.84 백만
코코아 (코코아콩)	175,412	톤	78%	22%	€37.09 백만
커피 (생두)	226,338	톤	34%	66%	€86.31 백만
면 (면린트:조면 공정 후 1차 생산면화)	11,759	톤	44%	56%	€1.66 백만
화훼(꽃과 식물)	943,859	1,000 items	100%		€7.25 백만
설탕(사탕수수)	120,230	톤	72%	28%	€6.81 백만
차 (차나무)	8,341	톤	60%	40%	€4.40 백만

<sup>1</sup> MT = 톤. 화훼의 '품목'은 꽃과 식물을 모두 포함.

#### 참고

이 표의 데이터는 전체 공정무역 생산자와 노동자의 약 90%가 생산한 주요 7가지 인증 원료 시장으로부터 도출된 수치이다. 보고된 수량은 최종 도달 시장(도소매 등)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공정무역 인증 기준 아래에 거래된 판매량이며, 본 보고서는 2021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선택 : 지속가능한 상품 소비

공정무역 생산자를 위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원료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조달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안해야 한다.

### 국제공정무역기구 X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의 <기후 친화 제품 인증 프로그램 (Climate Pledge Friendly)>

공정무역 인증 마크는 아마존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후 친화 제품 인증 프로그램>에서 주목받는 최초의 윤리 마크 중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어떠한 상품이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증진

일부 프로젝트는 생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 공화국과 페루의 11개 공정무역 바나나 협동조합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을 강화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약 100만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행될 예정인데, 이 기금인 《프랑스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과 대형 유통사인 《까르푸(Carrefour)》의 지원 자금이 포함됐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여성 생산자들의 리더십을 증진하고, 생산자들이 기후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약 만여 명의 생산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히 보기](#)

“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바나나 생산 과정을 개선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을 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미니카 공화국과 페루의 1,000여 명이 넘는 생산자들에게 더 나은 수입원을 제공할 것 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의 공정무역 바나나 네트워크 대표자 Marike de Peña



2020년 공정무역 인증 제품 판매 국가 131개국

2020년 공정무역 인증 제품 제조 기업 2,552개  
공정무역 인증 제품 수 37,000여 개

2020년 새로운 시장에서 공정무역 코코아 판매량 28% 증가

Javier Ordinala Valledares는 10년 이상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조합 Agraria APPBOSA의 조합원이었다. 이 협동조합은 공정무역 장려금으로 수확 철에 바나나를 더 쉽게 운송할 수 있도록 케이블 선을 설치했다.



인도 최대의 차(Tea) 연맹 INDCOSERVE는 2021년에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으로 인증받았다. 산하에는 3만 명 이상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수십 년 동안 협동조합과 함께해 왔다.



가나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 Kuapa Kokoo의 조합원들은 Sankof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 물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 달콤한 기회: 필리핀 내 공정무역 인증 설탕 공급망 강화

필리핀의 설탕 생산자들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산자 지원 사무소 (NAPP) 와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개의 공정무역 인증 설탕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Bukidnon 남쪽 지역에 마스코바도 설탕 가공 공장을 건설했고, NAPP가 제공하는 교육 및 시장 개발 지원을 통해, 약 350명의 생산자가 공정무역 인증 설탕의 판매를 확대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 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공정무역 인증 제품 수요 확대: SWITCH-Asia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SWITCH-Asia>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 생산자들을 위해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패션 레볼루션 위크(Fashion Revolution Week)와 공정무역 주간에 이행된 온라인 캠페인에 수천 명이 참여했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약 9천 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인도의 3개 회사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제품을 출시했으며, 인도 최초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제품 컬렉션을 출시했다.

인도의 소비자들은 2020년에 약 1억 1,900만 루피(141만 유로) 이상의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식음료 및 패션 제품을 구매했다.

### 효과적인 파트너십: 공정하고 회복력이 빠른 공급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기업 및 생산자 파트너와 협력하여, 그들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본부와 더불어 19개국의 국가 사무소(NFO)들, 그리고 3개의 지역별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는 세계적인 수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30년간 누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범분야적(Cross-Cutting)혁신: 국제 연대체 《Alliances for Action》과 함께한 <Sankofa 프로젝트>

스위스 초콜릿 회사 《HALBA》와 가나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조합 Kuapa Kokoo, 《국제무역센터(ITC)》, 《세계자연기금(WWF) 스위스 사무소》, 그리고 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범분야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기후 회복성
- 생물다양성 보존
-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입원 다양화

기타 파트너로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아프리카 사무소(Fairtrade Africa)와 스위스 사무소(Max Havelaar Switzerland), 개발 기관인 《에코탑스위스(Ecotop Suisse)》, 기후 보호 기관인 《사우스폴(South Pole Switzerland)》, 가나에 있는 세계자연기금 산하의 《자연보호재단(Nature and Development Foundation)》, 《국제야개발 위원회(Yam Development Council)》가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2년 차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1명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약 45헥타르에 달하는 토지에 혼농임업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코아뿐만 아니라 목재, 바이오매스, 유실수(과일나무), 양(Yam)과 기타 관련 작물들을 동시에 재배했다.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약 400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1,016명의 생산자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배 시스템을 통해 약 45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에 양, 옥수수 및 기타 작물을 재배했다. 이는 2023년까지 약 2,500명의 생산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약 7,000명의 생산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며, 가나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 Kuapa Kokoo는 다른 지역 공동체 및 생산자들에게 이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15명의 정규직과 19명의 시간제 인력을 고용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배된 코코아 외의 기타 작물의 가치는 16만 8천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생산자들의 생계소득과 식량안보에 이바지했다. 더 나아가, Kuapa Kokoo가 공정무역 기준 아래에 스위스 초콜릿 회사 《HALBA》에 납품하는 코코아의 양은 약 1,300톤을 넘어섰다. 새로운 시장 간의 연결 고리를 찾고 개발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또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생산자들과의 신뢰성 구축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은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사람과 지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 인권 및 환경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인권 의식 확립, 위험 요소 평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생산자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기업이 저위험지역의 상품만을 구매하거나, 혹은 힘든 생활환경 속에서도 인권 침해를 막고자 노력하는 생산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수년간 다방면의 접근을 취했다. 공정무역이 UN의 운영 및 인권 규율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했고, [<공정무역이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 안에서 인권 침해를 완화하는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정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관련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인 유럽연합(EU)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생산자와 노동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국제공정무역기구가 바라보는 인권과 환경 리스크와 공정무역 임팩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내용을 전달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권 헌장 \(Human Right Commitment\),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자세히 보기](#)



Leticia Kwaga 교장으로 있는 가나의 Asuadai MA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10개월 동안 휴교했으며, 지난 1월 다시 등교를 재개했다. 중학교 학교 건물은 코코아 생산조합인 Asuadai의 공정무역 프리미엄 장려금을 사용하여 2016년에 완공됐다.

##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활동의 세 가지 영역

### 국제공정무역기구 공정무역 기준 내 자체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기준

- 생계임금과 생계소득
- 아동노동, 강제노동 및 성폭력
- 성별, 인종,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 결사의 자유 및 노조 결성의 자유
-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 환경권

###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법안 세부 내용

- 법안은 특정 공급업체뿐 아니라 공급망의 구성원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 회사는 특정 생산지를 배제하기보다는 공동투자를 통해 위험성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 회사는 노동자, 생산자 및 이해 관계자와 협상해야 한다.

###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지원 서비스

- 생산자 및 노동자와의 대화
- 위기사항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침
- 수행한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점검
- 회복을 위한 지원

### 3. 옹호활동과 시민참여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매년 생산자, 초콜릿 애호가, 커피 애호가, 지속가능한 의류를 소비하는 사람들, 학생들 등 수백만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삶과 노동환경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 인증마크로 자리 잡도록 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목표는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 생산자와 노동자,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인권 옹호활동 및 시민 참여

그동안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옹호활동은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정부와 유럽연합에 생계소득 보장 등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역정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집중됐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지난 11월 <코코아 생산자들의 생계소득에 대한 인식 제고 - 소비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발간해 코코아 소비국인 유럽연합과 소속 국가들이 코코아 주 생산지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생계소득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들은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와 관련된 여러 국제행사에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국가사무소들은 지속가능한 생계소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코코아 생산 프로젝트(Initiative on Sustainable Cocoa, ISCOs)>에 참여해왔으며,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관련 입법을 요청하는 탄원서에도 참여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은 전 세계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하에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중 여러 항목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약 **70%**는 자신이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 기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느낀다.

전 세계에는 **2,075개** 이상의 공정무역 타운이 있다.

2021년 7월, 국제공정무역기구가 개최한 '세계 초콜릿의 날' 캠페인에 약 **1백만** 명이 참여했다.

#### 120만명 이상의 유럽 시민들과 함께 한 <Trade Fair, Live Fair> 프로젝트



유럽연합의 후원을 받은 3년간의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해 5,000여 명의 정책 입안자와 2,000여 명의 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5,000만 명의 참가자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제 여성의 날, 패션 레볼루션, 세계 공정무역의 날, 유럽 의회 선거, 커피와 기후변화 등 16개의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행동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유럽연합 시민들의 동원하는 등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옹호를 끌어냈다. 관련 연구 결과와 권고사항들은 유럽 집행 위원회를 통해 2021년 초 공유됐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

##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이바지하는 공정무역

UN은 가난을 종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자 지속가능성을 위한 17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일인 2030년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169개의 세부목표 중 식량, 생산자, 그리고 농업 종사자와 관련된 항목은 거의 없다. 그 중,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12개의 주요 목표를 선정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가치를 당기구의 목표 및 달성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환경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글로벌 공정무역 운동을 이행하고 있다.

###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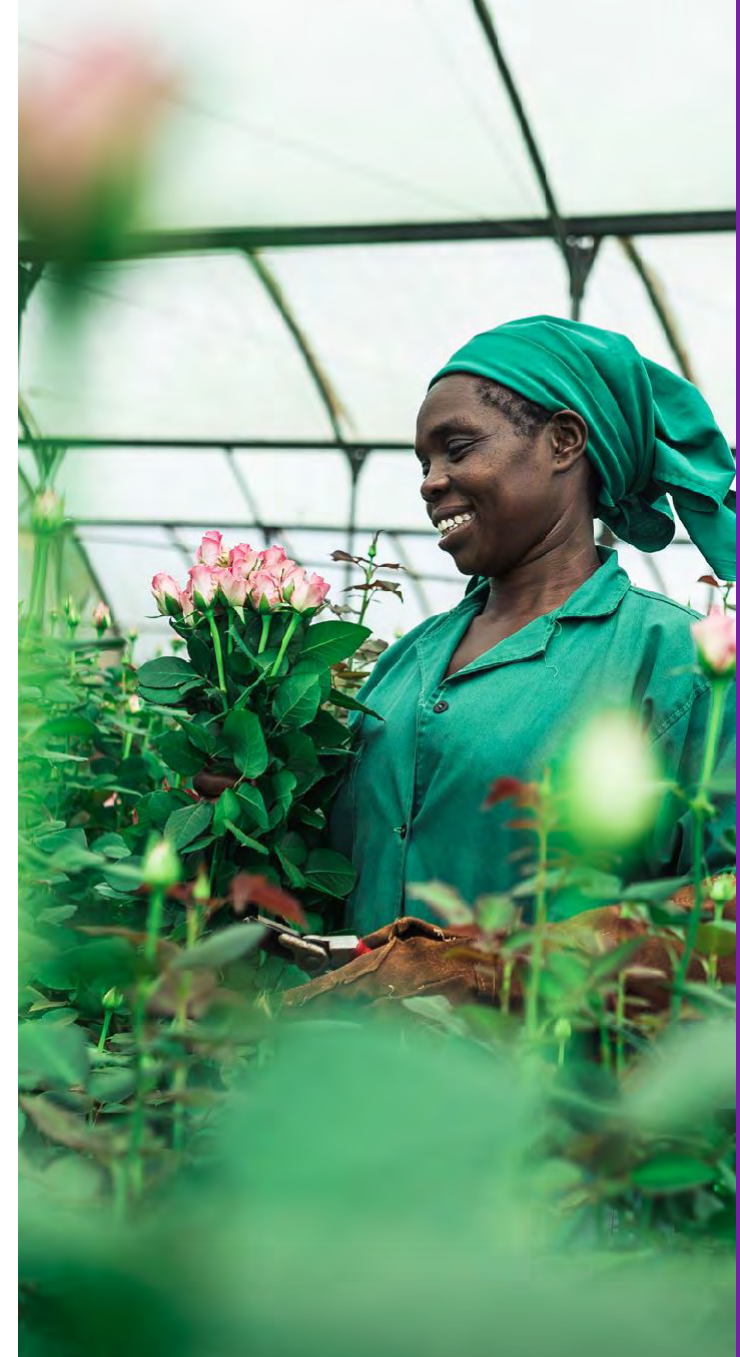
- 1. 빈곤종식
- 2. 기아 해결
- 4. 양질의 교육
- 5. 성평등
-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 10. 불평등 해소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13. 기후변화 대응
- 15. 육상 생태계
- 17. 글로벌 파트너십

-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연대체인 《Fair Trade Advocacy Office》와 함께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를 주제로 입법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성과 위험성을 분석해 전 세계의 생산자와 농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권을 보호할 설득력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 유럽연합 위원회가 실사 입법을 제안할 준비를 하는 동안,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협력 단체들과 함께 해당 법안들이 생계소득 및 생계임금 부족, 불공정한 구매 관행, 공급망 내부적 힘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 생산자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경험과 정책적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일부는 유럽 위원회와의 <기본협력협정(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재정적지원을 받기도 했다.

-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사무소(Fairtrade Africa)는 탄자니아의 커피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기 위해 커피 협동조합들과 협력했다.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의 주도로 중남미 5개국에서 진행된 <EXCHANGE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산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는 코로나19가 공정무역 생산자와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를 고안했다. 그 결과,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다른 협력체들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을 발표했다.
- 공정무역 청소년 대사들을 포함한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2021년 11월 글래스고(Glasgow, Scotland)에서 열리는 COP26 기후회담을 전후로 생산자와 노동자 가족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과 기후자금 조달을 촉구했다. 각국 정부들에게 요구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결의 탄원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Grace Mwagi는 케냐의 공정무역 인증 화훼 생산자 협동조합 Karen Rosen Limited의 노동자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동료 여성 노동자들을 도운, 진정한 공정무역 챔피언이다.



페루의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협동조합 Agraria Acopagro의 조합원인 Roberto Gallo는 10년 넘게 바나나를 재배해왔다. 그는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시리즈 <Farmers: 생산자들, 글로벌 위기에 대항하다>에 출연하기도 했다.

#### 4. 더욱 공정한 공급망을 위한 디지털화

생산자가 데이터와 기술을 얻는다는 것은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와 협동조합들은 기술을 통해 생산의 총비용을 파악하고, 시장가격을 따라가고, 날씨 패턴을 시각화하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산자 및 협동조합에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다른 거래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적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어렌즈(FairLens)>는 공정무역 공급망 내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판매상황, 공정무역 장려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이다.

또한, 2020년부터 생산자 조합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여 협상에서의 입지를 개선하고, 디지털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인 <페어인사이트>도 개발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각 조직의 공정무역 장려금 사용처를 국제공정무역기구 구성원 및 협력사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맞춤형 데이터 소유권 증진 프로젝트의 예시로 코트디부아르의 6개의 코코아 협동조합이 농업 소프트웨어 회사인 《팜포스》와 현지 데이터 서비스 업체가 함께 만든 조합 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다. 각 협동조합이 코코아 공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면 다른 조합도 그 재배지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어느 재배지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자금 융통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은 외부 협력업체들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정된 업체들과 묶일 필요 없이 여러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관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5. 미래를 향한 발판

공정무역 시스템은 생산자들과 국제공정무역기구 국가사무소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져 있다. 공정무역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들은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국제공정무역기구 국가사무소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마크 인증을 진행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은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기후 회복력,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기회 증대,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디지털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갈 계획이다.
- 개입성과 그 효과를 강화할 공정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 지원 파트너십을 확충하고자 한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유럽연합 집행기관과의 기본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을 통해 기구 내 체계와 생산자 조직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CLAC)는 생산자들을 위해 성평등과 청년 주도형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노동자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사무소(Fairtrade Africa)는 2020년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위해 8개국에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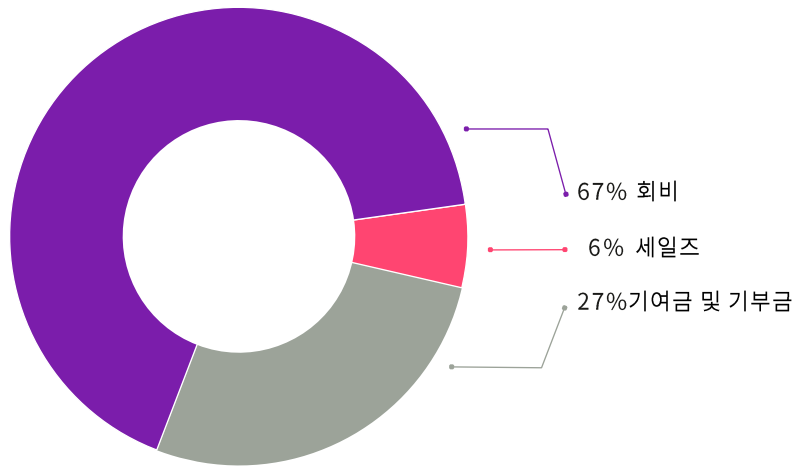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세분된 구조는 기구의 주요 장점이기도 하다. 생산자들은 대륙별 생산자 지원사무소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조합의 소유자이자 결정권자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는 소싱부터 맞춤형 공급망 솔루션까지 공정무역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를 구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세히 보기](#)



# 국제공정무역기구 회계 보고

## 수입



**회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회원기구로서 국제공정무역기구 국가사무소(NFO)로부터 회비를 받으며, 이는 기업들이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자사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수수료 비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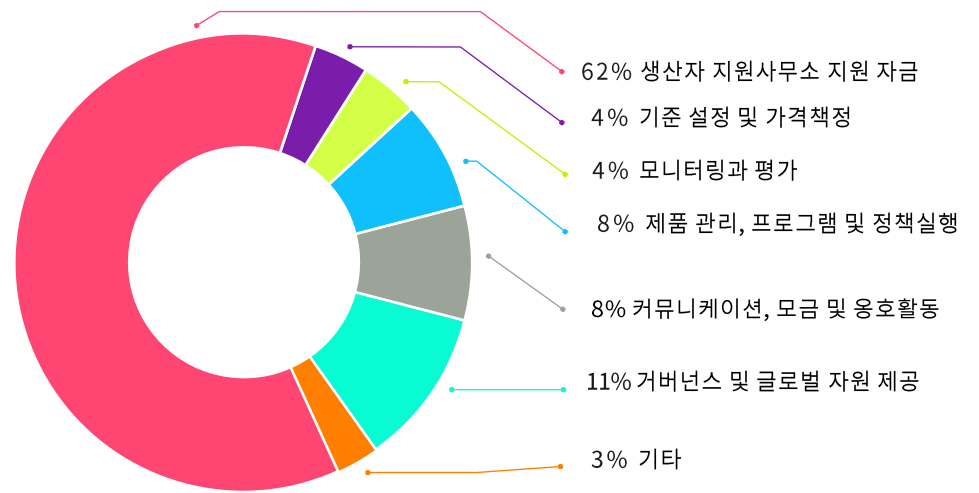
**세일즈:** 세일즈는 해외 판매 및 라이선스로 인한 수입이 포함된다.

**기여금 및 기부금:**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다.

## 2020 결산서

아래에 요약된 주요 재무 수치는 내부 경영 보고서와 2020년 감사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것이다. 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제 감사 전문기관인 《KPMG》로부터 적정의견 판정을 받았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회계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방식과 관련 독일 법률(KSTG 및 HGB)을 준수한다.

## 지출



**생산자 지원사무소 지원 자금:** 3개 대륙의 생산자 지원사무소는 이 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생산자 협동조합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에 생산자 지원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지원한 코로나19 구제 및 회복 기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품 관리, 프로그램 및 정책 실행:** 제품 관리와 프로그램 및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 모금 및 옹호활동:** 커뮤니케이션, 모금 및 옹호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이외에 파트너에 대한 보조금 (€130만)이 포함된다.

**거버넌스 및 글로벌 자원:** 이사회 및 총회, 재무, IT, 인적 자원, 법률 서비스, 브랜드, 상표 및 국제 라이선스 기능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 손익계산서

	2020 (1,000 €)	2019 (1,000 €)
총 수입	34,288	27,700
총 지출	33,486	25,026
투자수익	0	0
소득세	77	297
세후소득	725	2,377
이월 이익	173	406
변동적립금	-1,153	2,609
이익잉여금	2,052	174

### 2020년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재정 파트너

유럽연합 <대국민 개발교육과 이해증진(DEAR)>  
 유럽연합 <기본협력협정(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  
 유럽연합 <SwitchAsia>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 2020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추가 재정지원 파트너

호주 외교통상부 (DFAT)  
 벨기에 개발협력단 (DGD)  
 유럽 책임 광물 파트너십 (EPRM)  
 프랑스 개발청 (AFD)  
 제너시스 트러스트 (Genesis Trust)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 2020 대차대조표

	2020.12.31.	2019.12.31.
<b>고정자산</b>	<b>1,329</b>	<b>1,373</b>
무형고정자산	23	32
유형고정자산	143	178
금융자산	1,163	1,163
<b>유동자산</b>	<b>14,912</b>	<b>12,439</b>
수취채권	4,971	4,366
기타자산	613	135
유동자금	9,328	7,938
<b>선급비용</b>	<b>176</b>	<b>190</b>
<b>합계</b>	<b>16,417</b>	<b>14,002</b>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  
 이탈리아 개발협력청(AICS)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킹 보두앙 재단  
 핀란드 외무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Open Society Foundation)  
 지속가능한 코코아를 위한 스위스 플랫폼 (SPSC)  
 스위스 국가 경제 사무국 (SECO)  
 면화 관련 국제 개발단체 《Textile Recycling for Ai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RAID)》  
 트라이어스 (Trias)  
 영국 외무국제개발부 (FCDO)  
 이탈리아 베네치아 시

	2020.12.31.	2019.12.31.
<b>자기 자본</b>	<b>7,315</b>	<b>6,589</b>
제한 및 지정 적립금	620	221
별도적립금	4,643	6,195
당해순이익	2,052	173
<b>충당금</b>	<b>3,179</b>	<b>2,455</b>
부채	1,599	1,540
재화 및 서비스	1,379	1,315
기타 부채 및 이자 등의 증가액	220	225
<b>이연소득</b>	<b>4,324</b>	<b>3,418</b>
<b>합계</b>	<b>16,417</b>	<b>14,002</b>

### 국제공정무역기구 이사회

2021년 7월 선출된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 이사회:  
 Lynette Thorstensen, 회장 (기구 직속)  
 Bill Barrett, 부회장 (NFO-국가사무소 대표)  
 Miguel Ángel Munguía Gil, 부회장 (생산자 대표)  
 Frank Harnischfeger, 회계책임자 (기구 직속)  
 Rhea Beltrami (기구 직속)  
 Wambui Chege (기구 직속)  
 Andrea Debbané (기구 직속)  
 Kouame N'dri Benjamin-Francklin (생산자 대표)  
 Gnanasekaran Rajaratnam (생산자 대표)  
 Merling Preza Ramos (생산자 대표)  
 Laurence Tanty (NFO-국가사무소 대표)



**FAIRTRADE**  
INTERNATIONAL

**Fairtrade International** Bonner Talweg 177 53129 Bonn Germany  
Telephone +49 (0) 228 94 92 30 Fax +49 (0) 228 24 21 713 info@fairtrade.net  
www.fairtrade.net



**FAIRTRADE**  
KOREA

**Fairtrade Korea** Fairtrade Center, 142, Dongsu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03084)  
Telephone +82 (2) 725 0381 Fax +82 (2) 725 0383 info@fairtradekorea.org  
www.fairtradekorea.org

## Disclaimer

Data in this report were collected through various monitoring and data collection systems within Fairtrade, reported in some cases by producer organizations through the audit process and in other cases by other supply chain actors. Fairtrade International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data. The report has been compil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Fairtrade International reserves the right to update the data as new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The data are provided 'as is' and no warranty of any kind is given for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Fairtrade International will not be liable for any claims or damages related to the quality and completeness of the data, as far as it is permitted under law.

## Credits

Photos: Nana Anquah (p. 20); Chamong Tee Exports Pvt. Ltd. (p. 4); CLAC (p. 9, 14, 15); Fairtrade / Funnelweb Media (p. 12); Fairtrade Africa (p. 13); Fairtrade Belgium / Aap Media (p. 19); Fairtrade Germany / Rosa Panggabean (p. 17); José García (p. 11, 12); Verena Gorny (p. 22); Julio Cesar Huber (p. 8); Nyokabi Kahura / Fairtrade / Fairpicture (cover, p. 5); Francis Kokoroko / Fairtrade / Fairpicture (p. 7, 21); Christoph Köstlin (p. 23); Nyimas Laula / Fairtrade / Fairpicture (p. 5); Joséphine Lefebvre (p. 18); NAPP / INDCOSERVE (p. 20); Juan Nicolás Becerra Manrique (p. 16, 25); Dennis Nipah / Fairtrade / Fairpicture (p. 10); Ángela Ponce / Fairtrade / Fairpicture (p. 24); Vivi Pham / Fairtrade Belgium (p. 2); Luca Rinaldini (p. 6); Roger van Zaal (p. 15); Keoma Zec / Oxfam-Wereldwinkels (p. 9). Layout: Dreimalig, Cologne